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설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1호 현대불교
2008년 5월 28일(음력 4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너부터 알라! 너를 끌고 다니는 너부터 믿고 깨달아라!

대구에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하게 된 것을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역대 부처님의 마음이나 어디 돌이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과 체가 없어 광대무변한 마음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은 마음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육신이 없으면 무효고 마음내는 게 없으면 목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 세상 온갖 법을 다 들이고 내고 하십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따로 있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처님은 법신 응신 화신으로서 응해 주십니다. 모습은 다 각각이지만 마음이 한마음으로 집결돼서 음과가 모두에게 나가는 거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이야 어찌 돌이겠습니까. 전력이 같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똑같습니다. 가설을 해 놓고 자기 가装的 용도에 따라서 많게든 적게든 끌어 쓰게 돼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의 법도 역시 크든 작든 자기네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법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계! 우리 몸뚱이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가설이 돼 있고 지구에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지구에도, 바로 우리 세포에 가설이 돼 있듯이 그렇게 돼 있던 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전통신기처럼 전파를 통해서 자연법칙으로서 전체를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법계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변하고 묘해서 마음이 한번 생각을 하면 꽃나무하고도 상통할 수 있고 달나라하고도 상통할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은하계하고도 그 근본이 통할 수 있고 태양계하고도 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우주 전체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에 있다는 애 겁니다. 직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만사 살림살이가 전부 우리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끊임없는 진리지요.

그런데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하신다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네 살림살이, 생활을 빼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입산해서 수도하는 승려들이 참선을 한다면서 틀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참선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신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즉, 누우나 일어서나 앉으나 일을 하나 그 자체가 전부 참선이란 말입니다. 알하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참선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참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참선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나로부터 일체가 벌어졌다 하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잘못되고 잘되는 것도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전부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라. 너부터 깨달아라. 너를 끌고 다니는 너부터 믿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하나님이시여! 주여! 부처님이시여! 칠성님이시여! 독성님이시여!' 하고 아무리 찾아 뵈었다 허공에 헛손질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내 마음의 주인이 있으니, 몸뚱이는 그 주인의 시자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도 여래의 집이 될 수 있고 도량도 여래의 집이 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의 주인에게 맡겨 놓고 지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으로부터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면서 살림을 하는 것은 아시죠? 살림을 누가 합니까? 모두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자체의 마음이 마음을 내면, 마음을 내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주인입니다. 나쁜 일도 하게 하고 좋은 일도 하게 하고, 거룩한

일도 하게 하고 배신도 하게 하고, 불명여리가 올라오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애고도 생기게 하고 병고도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죠. 그런 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몸속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정자 난자를 받아서 내 영혼과 더불어 삼합이 합쳐져서 내가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거기에 집결이 되는 거죠. 인연에 따라서 같이 합쳐집니다. 한 몸 태어나는 데 그것이 전부 들어 있게 되는 거죠. 들어 있되, 작용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자기의 업식대로 부서를 맡아서, 즉 공장이라면 공장을 맡아서, 다 자기 일 할 것들을 맡아서 몸속에 들어왔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 중생들은 전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입력이 돼 가지고 그냥 현실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아서 모두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너와 나와 돌이 아닌 한마음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아! 돌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네가

죽으면 바로 나도 죽는 것이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의 모든 중생들은 다 이 공부를 함으로써 상태가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네 자성을 심고 아래로는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다스리면 보살로 화합니다. 즉 남한테 누가 될 일이라면 '모든 것을 그렇게 안 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돌려서 놓는 데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의식, 업보 인과응보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까지도 마음으로써 한마음으로 다 뒤 주는 데서 그게 커버가 되고, 앞서 입력돼서 나오면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수많은 의식들이 모두 천백억화신으로 다 화한다 이 소립니다. 모든 의식들이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모두가 돌이 아니게 돌아가는 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화해서 나투게 되죠.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하여 눈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가고 음이 없이 제도를 한다는 애 겁니다.

여기 대구에 와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참선을 하는 법과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법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의식, 의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주인공!' 하고 불러야만 참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한마음이고, 들어오는 대로 외부의 모든 것이 한마음이며, 꽃과 날아다니는 것도 모두 함께 통해서 작용을 하고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전부 통합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한마음'이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어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한마음인 것입니다. 이 한마음을 딱 한마음으로 세운다면 중심,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란 뭘 뜻하는냐?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통 누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정된 것을 하나라도 꼬집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놓고 돌아가시죠? 걸어오면 발자취를 짚어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오시죠?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졌으면 놓고 가시죠? 봤으면 본 대로 다른 걸 볼 때는 앞서 본 거는 놓고 가시죠? 일거일동 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아이구, 내가...' 이러시면서 놓고 가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볼려고 그냥 매달리고 온통 아단들을 하니 그 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구도 시공을 초월해서 일본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돌아가는 이상 모든 게, 천체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것도 벌써 과거입니다. (법상을 짚으시며) 이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체 살림살이가 어찌 고정되게 머물러 있다고 보겠습니까. 머물지 않는 도리로 살고 계시니까, 그렇게 돌아가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로 돌아가는 불바퀴에다 그냥 놓는 것입니다. 놓는 것입니다. 정신계의 이치를 모르시니까 다시 재차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는 놓을 것도 없고 안 놓을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관찰하고 지켜본다면 하나하나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바깥으로 찾는다고 해서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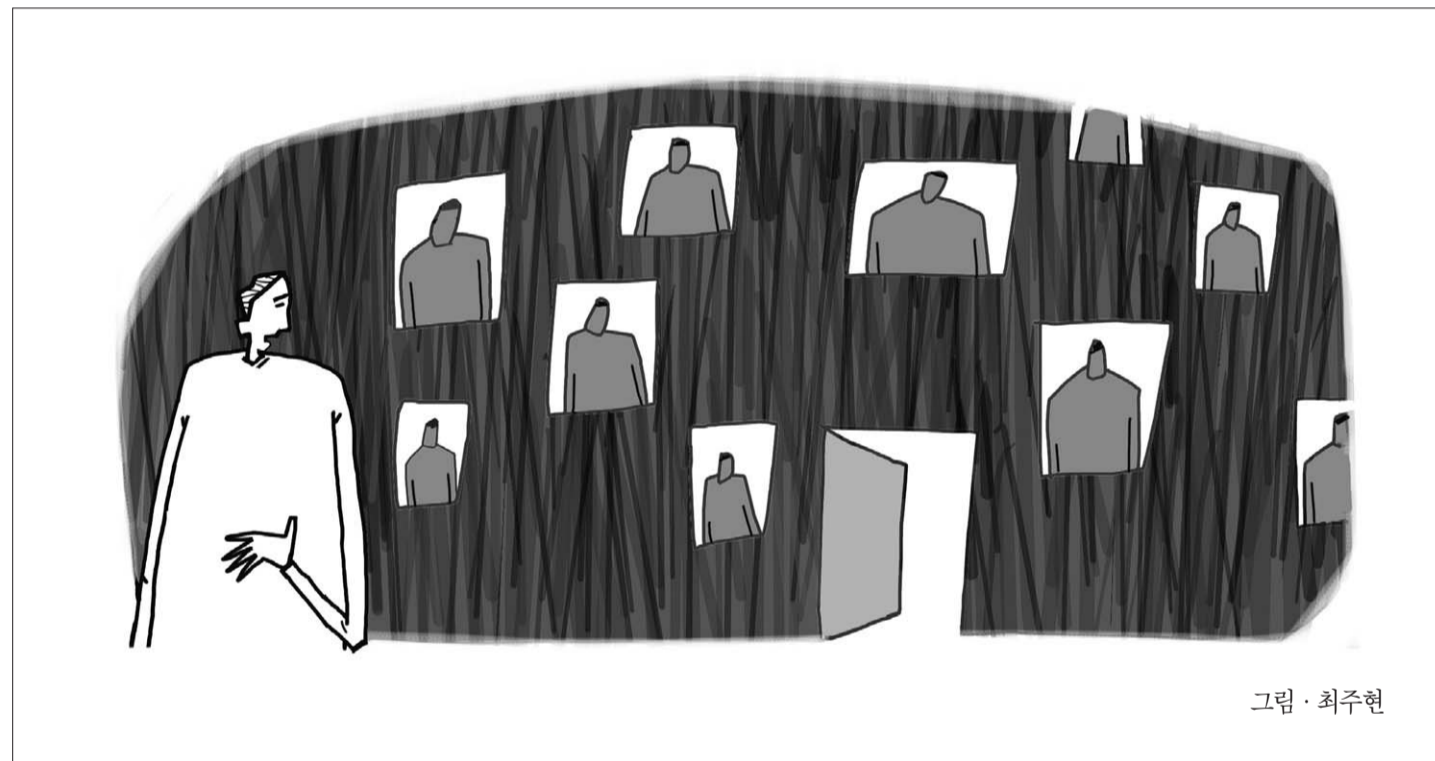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간화정로』의 저자 '월암 스님'의 또 하나의 대작 이번에는 『돈오선』이다

돈오선이란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공)함을 요달하여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돌려쓰는 실천행이다.

한산 월암 關山 月庵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道門) 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중국에 유학하여 선학을 연구하고 여러 선종(宗)을 참배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제법(諸法)에서 수선(守善)하였다. 지금은 벽송선원에서 선교(善交)를 연구하고, 선종(宗) 불이선(不二) 운동 등 한국 선학(仙學) 진작에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선화(仙話)를 열고 『간화정로(看話正路)』를 저술하였다.

글 월암 스님 | 499면 | 20,000원

금을 찾기 위해서 광맥을 찾듯이 실참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행체계의 이해와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한 채 수행을 접근하는 것이 선수행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 못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국불교의 모순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 월암 스님의 돈오선의 저술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귀감의 지침이 될 것이다.

- 설정 스님 (덕숭총림 수좌)

돈오선은 조사선과 간화선의 핵심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깊이 다룬 문헌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월암 스님이 돈오선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셔서 진정견해(眞正見解)를 세우고, 나아가 선문의 화합과 활력을 불어넣어 정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선자(禪者)에게 꼭 권하고 싶은 필독서이다.

- 의정 스님 (상원사 용문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은 지금까지 '돈오' (즉각 깨달음) 이후 '육용'의 문제로 성철 선사-보조 국사의 문도들 사이에서 감정적 대립만으로 치달으면서 간과해 버린 논쟁의 역사성과 현실적 맥락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치고 있다.

- 한기래선문

"그간의 돈-점 논쟁이 정쟁적이고 소모적이었다."고 반성하며 "다양한 논쟁수행론을 회통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펼친다.

- 불교신문

돈오선의 근원적 가치를 인식할 때 돈점논쟁의 뿌리와 결구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 현대불교신문



간화정로 看話正路
글 월암 스님 | 512면 | 18,000원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